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54호

2025.07.17.(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미국·반도체	美, 中에 반도체 설계 SW 수출제한 해제	중국·소재	中 업체, 실리콘 웨이퍼 가격 인상 단행
미국·반도체	美, 반도체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확대	일본·희토류	日, 희토류 추출 위해 심해 진흙 채굴 예정
미국·구리	美, 구리에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미국·희토류	美 정부, MP 머티리얼스 최대 주주 등극
말레이·반도체	미국산 AI 반도체 칩 수출허가제 도입	미국·소재	美, 드론·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영향 조사 착수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반도체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美, 반도체 관련 對中 수출제한에 대한 완화적 조치 시행
중국·소재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중국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가격 인상 단행
미국·반도체	[시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美, 국내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35%로 확대

산업·품목 심층분석

중국·배터리	중국 폐배터리 산업과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대만, 美 셰일가스 자산 매입 검토... 미국과 협력 강화 모색
-----	-------------------------------------

II. 월간 공급망



경제안보 시대의 공급망 전략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IV. 공급망 소식통



경남 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7.2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 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미국, 반도체 美, 中에 반도체 설계 SW 수출제한 해제	7.3.(목)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제한을 해제함 ✓ 이에 반도체 설계자동화 SW 공급업체들은 중국 내 사업을 위해 미 정부의 별도 허가 취득이 불요	<u>CNN</u>
2	중국, 소재 中 업체, 실리콘 웨이퍼 가격 인상 단행	7.9.(수)	✓ 중국 내 다수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을 8~11.7% 인상 ✓ 이는 업스트림 부문인 폴리실리콘 재료 가격 상승에서 기인함	<u>바이두</u>
3	미국, 반도체 美, 반도체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확대	7.2.(수)	✓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 ✓ 기존 반도체법 수혜대상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거론	<u>CNBC</u>
4	일본, 희토류 日, 희토류 추출 위해 심해 진흙 채굴 예정	7.4.(금)	✓ 일본은 '26년 미나미토리섬 근처 심해에서 희토류가 풍부한 진흙의 시험 채굴 시작 예정 ✓ 해당 지역에는 희토류 약 1,6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3위 규모임	<u>로이터</u>
5	미국, 구리 美, 구리에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7.9.(수)	✓ 미국, 8.1일부 구리 및 정제 구리에 50% 관세율 적용 예정 ✓ 이는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토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u>CNBC</u>
6	미국, 희토류 美 정부, MP 머티리얼스 최대 주주 등극	7.11.(금)	✓ 美 국방부는 국내 유일의 희토류 생산업체 MP 머티리얼스 지분 4억 달러(약 5,500억 원) 인수 ✓ 또한 자석 제조시설 건설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28년 가동 시작 예정	<u>로이터</u>
7	말레이, 반도체 미국산 AI 반도체 칩 수출허가제 도입	7.14.(월)	✓ 말레이시아는 미국산 고성능 AI 반도체 칩의 수출·경유에 무역 허가제 즉시 도입 결정 ✓ 이는 중국 우회 수출 방지 목적으로, 기업들은 수출 시 최소 30일 전 당국에 통지 필요	<u>로이터</u>
8	미국, 소재 美, 드론·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영향 조사 착수	7.15.(화)	✓ 美 상무부, 드론 및 폴리실리콘 관련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착수 ✓ 이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뒤따를 가능성 거론	<u>로이터</u>

주간 이슈 포커스

1 마·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마·중, 반도체 美, 반도체 관련 對中 수출제한에 대한 완화적 조치 시행



美, 대중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제한 해제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중국 내 사업에 대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제한을 해제함

* 시놉시스(미국),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미국), 지멘스 EDA(독일)로,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70% 차지

- ▶ 앞서 '25.5월, 미국 상무부는 이들 3사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음
- ▶ 이번 수출제한 해제 조치는 '25.6월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한 1차 제네바 무역 합의의 일환임

출처: CNN(7.4.)

美, AI 반도체 칩 對中 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에 대한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밝힘

- ▶ 앞서 '25.4월, 백악관은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엔비디아는 이로 인해 55억 달러(약 7.6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 엔비디아 CEO는 'RTX 프로'라는 새로운 그래픽카드* 출시를 소개하며, 이는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양의 중국 전용 그래픽카드라고 전함

* 컴퓨터 모니터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연산을 처리하는 부품

출처: CNBC(7.15.), 로이터(7.16.)



중·중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입 의존도 현황

- ▶ 중국 반도체 산업은 EDA 소프트웨어에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7nm 이하의 첨단 공정 설계에서는 미국 등 해외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며, 화웨이 등 중국 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미국산 EDA 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시놉시스와 케이던스의 중국 매출 비중은 각각 16.1%, 12.3%로, 중국은 이들 기업의 주요 시장임

국가	기업	중국 EDA 시장 점유율	특징
미국	시놉시스	약 60~65%	첨단 공정(7nm 이하) 강점, 빠른 칩 개발 및 통합
	케이던스		디지털·아날로그·PCB 등 전 영역 설계
독일	지멘스	약 5~10%	칩-패키지-보드-시스템 통합 포트폴리오
중국	엠펙리언 등	약 10~14%	주로 14nm 이상, 첨단 공정 한계

- ▶ 중국의 대표적 EDA 기업인 엠펙리언, 프리마리우스, 세미트로닉스 등은 최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첨단 공정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제한적 수준임. 중국 정부는 EDA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이나, 단기간 내 해외 의존도 해소는 어려운 상황임
- ▶ '23년 기준,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505억 달러, 수입은 1,771억 달러로 적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562억 달러, 수입 793억 달러로 적자, ▲아날로그 반도체 수출은 269억 달러, 수입 823억 달러로 적자임

출처: ainvest(7.4.), SCMP(7.3.), KOTRA 시안무역관 해외시장뉴스(24.7.10.)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중국, 소재 중국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가격 인상 단행

중국 내 많은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으며, 다양한 크기의 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8~11.7% 상승했다고 현지 언론이 밝힘

* 183N 실리콘 웨이퍼는 0.9위안/장에서 1위안/장으로 11.1% 상승, 210RN은 1.03위안/장에서 1.15위안/장으로 11.7% 상승, 210N은 1.25위안/장에서 1.35위안/장으로 8.0% 상승

▶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가격 상승에 대해 **업스트림 부문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 다운스트림에 전가된 것**이라고 풀이

▶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원인

중국 정부의 저가 출혈 경쟁 억제 정책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임.
또한 공급 과잉 완화를 위한 주요 업체들의 감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도 가격 상승에 기여함

중국 정부의 저가 경쟁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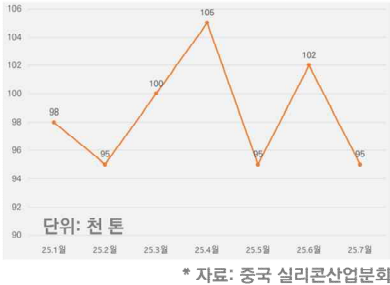
폴리실리콘 중국 내수 가격 ('25.1~7월)



- ▶ '25.7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주요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업체들과 회의를 열어, '원가 이하 판매 금지' 등 저가 출혈 경쟁은 억제하는 정책 신호를 보냄
- ▶ 이에 주요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에 동참하며 시장 가격 반등
- ▶ '25.1월 이래로 34,500위안/톤까지 하락한 폴리실리콘 가격은 '25.7월 41,333위안/톤으로 상승

중국 주요 업체의 생산량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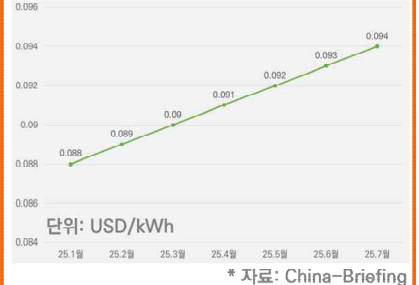
폴리실리콘 중국 생산량 ('25.1~7월)



- ▶ Tongwei, Daqo, GCL 등 중국의 대형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누적 3만 톤 가량 생산을 감축하며 생산량을 줄임
- ▶ 이로 인해 재고 일부가 해소되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
- ▶ '25년 상반기 평균 약 99,000톤이던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25.7월 95,000톤으로 감소함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중국 내수 전기요금 ('25.1~7월)



- ▶ 폴리실리콘은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전기가 필요함
*폴리실리콘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3%임
- ▶ '25년 들어 중국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폴리실리콘의 생산원가가 높아졌고, 생산업체들은 이를 가격에 반영함
*중국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시행 중이며, 여름철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

▶ 한국 실리콘 웨이퍼 중국·일본산 수입액

국가	2020	2021	2022	2023~2025*추정
일본	916	948	897	약 800
중국	424	563	778	약 80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EP

- ▶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실리콘 웨이퍼 공급국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현시점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실리콘 웨이퍼 수입에서 양대 축을 이루고 있음

- ▶ 중국산 실리콘 웨이퍼는 한국 반도체·태양광 산업의 주요 수입원이며, 최근 수입 비중이 40~45%까지 증가함. 이에 중국산 실리콘 웨이퍼의 가격 인상은 국내 기업의 생산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200mm, 300mm 등 특정 규격의 웨이퍼를 중국에 의존하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경우에는 가격 인상의 영향이 큼.
- ▶ 만일 실리콘 웨이퍼 가격 인상분이 반도체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할 시에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급선 다변화,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출처: Baidu(7.9.), SunSirs(7.15.),

③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미국, 반도체 美, 국내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35%로 확대

AI가 선정한 이슈

2025.7.1일부터 17일까지의 공급망 관련 이슈를 종합 분석한 결과, 7.2일 미국 상원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의 일환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35%로 확대한 것을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Q. 35% 세액공제가 종전의 CHIPS Act와 다른 점은?

A.

CHIPS Act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했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35%로 상향했습니다. 투자액에 상한선이 없는 세액공제로 대규모 투자 기업에 유리하며, 적용 대상도 2026년 말까지 착공하는 신규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접 보조금과 달리, 실제 투자 규모에 비례해 혜택이 커집니다.

Q. 35% 세액공제 적용에 예외가 있는가?

A.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우려국(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나, 최근 10년 내 우려국에 대규모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법안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A.

미국 중심의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어, 기존 아시아 중심 구조에서 지역별 분산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미국 내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동맹국 간 기술협력과 공급망 통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 더 알아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7.3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함. 해당 법안은 ▲감세 조치 영구화, ▲대선 공약 반영, ▲국경 안보 및 국방, ▲재정 상황 조정, ▲복지 예산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이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조정하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와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반도체 공장 건설은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을 촉진함.

OBBB 법안 통과에 따른 한국 반도체 기업 전망

▶ 해당 세액공제는 2022년 말 이후 가동하고 2026년 말 전에 착공한 시설에 제공됨.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에 대해서는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공제와 보조금의 총액의 변화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출처: 국회도서관(7.1.)

OBBB vs CHIPS Act

구분	OBBB (2025년)	CHIPS Act (2022년)
목적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추가·확대, 투자 촉진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생산 지원
세액공제율	35% (상한선 없음)	25% (상한선 있음)
적용 대상	2022년 말 이후 가동, 2026년 말까지 착공 시설	2023~2026년 내 투자기업
지원방식	세액공제 중심(직접 보조금은 별도)	세액공제·직접 보조금·R&D 지원 등 종합
특징	대규모 투자에 유리, 인센티브 확대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중점

▶ 양 법안 모두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임. 단, OBBB는 CHIPS Act의 인센티브를 강화한 후속 입법으로, 투자 유인 효과가 큼. 한편 CHIPS Act는 세액공제 외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법률로써,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 또한 포함함.

출처: CNBC(7.2.), CSIS(4.25.)

산업·품목 심층 분석

중국, 배터리 중국 폐배터리 산업과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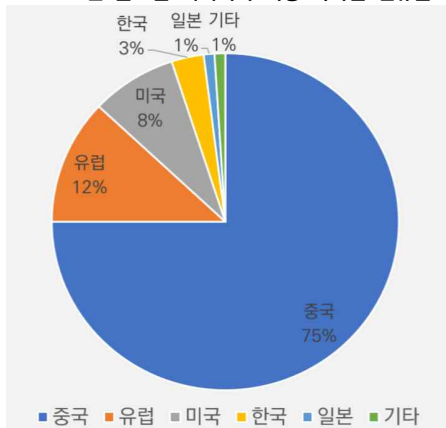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도 압도적 지위를 구축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음. 반면 한국과 일본은 배터리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관련 통계 공개와 산업 육성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아래에서는 중국의 폐배터리 산업 현황과 정책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중국 폐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지배력

2025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처리능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구체적인 지역별 연간 재활용 처리 능력은 중국이 약 120만 톤, 유럽 약 20만 톤, 북미 약 14만 4천 톤임.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시장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2025년 기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공급량은 연간 약 160만 톤에 달하며, 2030년에는 300만 톤을 넘길 전망이다. 중국의 폐배터리 원료(스크랩) 발생량은 2025년 약 7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중국은 전 세계 재활용 원료 중 65~70%를 차지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내 재활용 공정의 핵심 원소(리튬·니켈·코발트 등) 회수율은 95~98%에 달함. 리튬·니켈·코발트 등 주요 금속의 글로벌 수요는 2035~2040년경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재활용 원료 공급이 전체 원료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이에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재활용 원료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국가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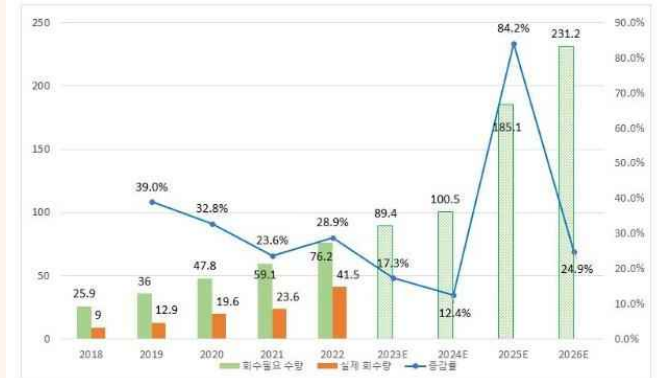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2022~2040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발생량 전망 (단위: 만 톤)



2018~2026년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추이



* 증감률: 회수 필요 수량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EVtank, iimedia, 중산산업연구원

'21년 중국 폐 리튬이온 배터리 회수 필요량*은 59.1만 톤, 실제 회수량은 23.6만 톤으로 회수율 40% 미만이나, '22년 회수 필요량은 76.2만 톤, 실제 회수량은 41.5만 톤으로 50%를 초과함. '26년 중국의 회수 필요량은 231.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특정 기간 발생한 폐배터리 중 회수 또는 수거되어야 하는 총 수량

한국과 일본의 폐배터리 회수율은 공개된 수치가 없는데, 이는 공식 통계 산출 체계가 없으며, 배터리 처리 체계가 분산되어있는 산업 구조이고, 폐배터리 회수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 있기 때문임

▶ (참고) 한국·일본 폐배터리 회수율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

- ▶ **공식 통계 산출 체계 미비:** 한국과 일본은 배터리 회수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전기차 배터리 성능 보증기간이 만료된 사례가 많지 않으며, 사고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폐배터리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할 공식적인 통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임. 특히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중고차로 해외 수출되어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음. 2020년 기준 일본의 중고차 수출 중 147,000대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였으며, 이는 전체 중고차 수출의 11.1%에 해당함
- ▶ **산업 구조와 시장 특성:** 한국의 경우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주를 이룸. NCM 배터리는 개당 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이므로 유가성이 높아 회수가 용이하여 별도의 공식 통계 관리 필요성이 낮았음. 일본의 경우, 차량용 배터리의 회수는 폐차 해체 시 해체 업체에서 분리된 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비한 자체 회수 계획에 따라 처리되거나, 자원 회수업체나 재사용 부품 바이어에 의해 회수되는 분산되어 통합된 회수율 통계 산출이 어려움
- ▶ **정책 및 제도 변화의 과도기:** 한국은 2021년, 환경공단을 통해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배터리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는 제도 정비 과정에 있어 정확한 통계 수집이 어려운 상황임. 일본의 경우 2025년 통상국회에서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개정을 통해 회수금속 회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제도적 틀이 완성되면 보다 정확한 통계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폐배터리 산업 정책 알아보기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중국의 폐배터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급격한 확산과 그에 따라 늘어나는 폐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 정책임. 이 제도는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 차량 제조사에게 배터리 생산부터 유통, 사용, 회수,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책임을 부여함. 이를 위해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범위한 배터리 회수망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회수·재활용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 방식으로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회수망을 설치하고, 회수 및 재활용 실적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한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회수율 등 구체적인 목표치도 설정되어 있음. 이 제도는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해 회수율과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내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이 NCM 배터리로 유가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회수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함. 다만, 재활용이 어려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EPR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환경부는 2025년 5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힘. 이는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함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의무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배터리의 생산, 사용, 유지보수, 폐기 단계까지의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임. 이 시스템은 배터리의 불법 유통과 환경오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입 전기차와 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력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추적이 가능해졌고, 불법 처리 방지와 자원 회수 극대화, 그리고 통합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산업 관리가 가능해짐.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는 국가 표준에 따라 고유 이력코드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생산자, 생산일, 제품유형, 일련번호 등)를 포함해 실시간으로 등록·갱신해야 함

중국의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의무화 제도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핵심 정책임. 중국은 2018년 신에너지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잠정방법 발표와 함께 이 제도를 본격 도입했으며, 2020년에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한층 강화함. 이 제도는 배터리의 생산부터 유통·사용·회수·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통합 국가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등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중국은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늘어나는 폐배터리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유통·재활용업체 등에게 배터리 이력정보 등록 및 갱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모든 배터리에는 19~24자리의 고유 이력코드가 부여되며, 이 코드에는 제조사·생산일·제품유형·일련번호 등 배터리의 주요 정보가 담김. 제조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국가 표준에 따라 등록한 뒤, 이후 유통·장착·사용·교체·폐차·회수·재활용 등 전 과정의 데이터가 국가 배터리 관리 플랫폼에 입력됨

이 시스템은 배터리 생애주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해 주며, 불법 유출과 환경오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나 결함 발생 시, 원인 파악에도 도움을 줌. 또한 실제로 배터리 회수·재활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과 산업 관리 고도화에도 중요한 역할함.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시스템 배터리 및 수입 제품도 적용 범위임



* 자료: 베이징이공대학교 전기자동차 국가공정연구센터(北京理工大学电动车辆国家工程研究中心)

📄 국가 표준화 및 인증 시스템

국가 표준화 및 인증 시스템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중국은 배터리 재활용, 재제조, 해체, 보관, 운송 등 전 과정에 대해 기술, 환경, 안전 기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음.

재활용 기업은 이러한 표준에서 제시한 설비, 기술, 환경, 회수율,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나 공식 인증을 받아야 주요 사업 수행과 정부 지원이 가능함. 표준화된 품질과 안전, 환경 기준을 기반으로 재활용 제품의 시장 유통이 허용되고, 2025년부터는 국제표준과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산업의 기술, 환경,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장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불량·비공식 재활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의 폐배터리 관련 정책 비교

국가	정책명	시행시기	주요 특징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2023년(배터리), 2026년(확대 적용)	·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 회수율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전기차·ESS 등으로 적용 확대 및 재활용 소재 인증제 도입 예정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2025.2월 본격 시행	·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추적관리(교체·재사용 이력까지 모두 등록) · 배터리마다 고유 인증번호 관리 · 안전관리 강화 및 결함·사고 시 원인 추적 가능
중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2015년(시범) 2018년(신에너지차 포함)	· 배터리 제조사·자동차사에 회수·재활용 의무 · 서비스 네트워크 통한 전국적 회수망 구축 · 법적 강제 및 대대적 행정지원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2018.8월	· 국가 통합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배터리 고유 코드 부여) ·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실시간 등록·관리 · 배터리 불법 유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

자료: 환경부(5.14.), KOTRA 상하이무역관 해외시장뉴스('22.3.15.)

🔥 출처

- Reaserchandmarkets. (2025, May 30). GlobeNewswire.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5/05/30/3090864/28124/en/Battery-Recycling-Market-Global-Outlook-Report-2025-2030-OEMs-Forge-Partnerships-to-Create-Stable-Battery-Supply-Chains.html>
- Venditti, B. (2025, May 22). Elements.
<https://elements.visualcapitalist.com/visualizing-chinas-battery-recycling-dominance/>
- 환경부. (2025, May 14).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 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이서현. (2024).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향, 131.
- 김철후, 윤홍식, & 길형배. (2022).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기계기술정책, 109.
- KOTRA 상하이무역관. (2025, March 15). 中, 전기차량용 배터리 회수·재활용 시장 동향.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대만, 美 셰일가스 자산 매입 검토... 미국과 협력 강화 모색

 대만 국영 석유기업인 대만중유공사(CPC)는 미국 셰일가스 생산 자산의 매입을 검토 중

* 대만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 이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천연가스와 석탄이 전력의 80% 이상을 차지

- 앞서 '25.3월, CPC는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LNG 구매·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음
- 대만 언론들은 CPC가 '24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으며, 누적 손실액은 691억 대만달러(약 3.2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함

출처: 로이터(7.12.), Taipei Times(7.13.)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2주)

비철금속 | 美 관세 예고로 인한 미국향 선적 급증으로 동 가격↓, 인니 증산 움직임으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6월	전년비(%)	7.1주	7.2주	전주비(%)
동	9,147	9,432	3.1	10,047	9,801	△2.5%
니켈	16,812	15,372	△8.6	15,088	14,946	△0.9%
아연	2,779	2,739	△1.4	2,727	2,718	△0.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美 관세 예고로 인해 NYMEX-LME 간 프리미엄 확대 및 전기동의 미국향 선적 급증에 따른 재고 증가로 동 가격 하방 압력 심화

칠레의 동 생산 호조 및 메이저 광산 생산량 증가 또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니켈) 美 관세 리스크에 따른 무역 갈등 우려 심화 및 인도네시아의 니켈 증산 움직임으로 인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철강 | 中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6월	전년비(%)	7.1주	7.2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6.85	△21.7	112.13	112.57	0.4%
원료탄	240.90	184.88	△23.3	178.46	177.8	△0.4%
철광석	109.89	100.38	△8.7	93.81	95.6	1.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유연탄) 유가 상승 및 일부 지역의 폭염 영향으로 인한 계절성 수요 증가로 연료탄 가격 상승

 (철광석) 中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 및 중국 철광석 재고량 감소로 가격 상방 압력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2주)

희소금속 | 주요 생산업체들의 가격 인상 추진으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6월	전년비(%)	7.1주	7.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096	△8.8	1,068	1,048	△1.9%
탄산리튬	12,526	9,618	△23.2	8,719	8,919	2.3%
수산화리튬	11,398	9,241	△18.9	8,169	8,155	△0.2%
코발트 (U\$/lb)	16.25	17.42	7.2	19.5	19.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42,642	△5.7	250,900	261,300	4.1%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1,234	10.0	63,570	64,990	2.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주요 생산업체들의 마진 구조 개선 위한 가격 인상 추진 및 일부 대형 업체의 생산 중단 발표로 탄산리튬 가격 상승

🔲 (수산화리튬) 지속적인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수요 부진으로 인해 전주 대비 가격 하락

에너지 | 중동 내 지정학적 정세 불안으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7.1주	7.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1.74	△7.84	68.94	70.73	1.78
브렌트유	79.86	70.69	△9.17	68.19	69.64	1.45
WTI	75.76	67.51	△8.25	66.25	67.80	1.55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후티 반군이 홍해 항행 중인 상선 공격 재개하며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 재부각으로 유가 상승
🔹 7.6일 홍해 항행 중이던 그리스 소유 벌크선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선원들이 대피하고 선박이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또 다른 그리스 소유 벌크선이 이틀에 걸친 반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
🔹 단, OPEC+가 8월의 증산 규모를 당초 시장 예상 대비 확대 발표한 것이 유가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

월간 공급망

◆ 경제안보 시대의 공급망 전략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binjunha 실장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비용 절감’과 ‘효율화’가 공급망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자원 무기화 등으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경제안보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주요 품목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구리, 인듐, 니켈, 희토류 등 반도체,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원자재 및 핵심광물의 무기화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면서, 현재 글로벌 사회는 지경학적으로 과거 냉전 시기보다 더 분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중단 위기를 겪을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미국이나 EU와의 협상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효과적 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 및 희토류 관리조례 등을 통해 희토류의 채굴, 제련, 가공, 유통, 수출 등 공급망 전 과정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법률 기반의 구조적 전략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시에 희토류 영구 자석은 전기 모터, 액추에이터 등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에 많이 소요되므로 중국은 자국 내 폭발적으로 성장할 미래산업의 수요에 대비하여 핵심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관세정책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전략 품목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자체 생산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직접 생산품규칙(FDPR) 등을 통해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도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핵심 광물의 내재화와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도입하여 주요 기술 산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적극 추진하며 법·제도·재정 지원을 통해 핵심 전략 자산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소부장 산업 등에서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의 ‘가시성’과 ‘대체 가능성’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KOTRA에는 2023년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 센터는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전파,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지원, 수입처 다변화 등 다양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급망선도사업자 선정 및 지원,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촉진 지원,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 공급망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또한 KOTRA는 격주 뉴스레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발간하여 글로벌 공급망 트렌드,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고 정책수립자와 기업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뉴스레터는 해외무역관의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국가희소금속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작성된다.

경제안보 시대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 경쟁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산업공급망협의회를 통한 정책 제안, 제도 개선, 현장 의견 수렴과 애로 파악 등 소통체계를 공고히 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조달 역량 강화, 민관 연계의 위기 대응능력 향상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겠다.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원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전략광물은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첨단산업 등의 전략적 산업에서 사용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일부 광물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된다. 전략광물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단 한 개 광물의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효과는 엄청나므로 정책적, 공급망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광물에 대해 알아보자.

📖 연구 배경 : 미·중 갈등 심화 속 아프리카 핵심 광물 공급망의 부상

- ① 우리나라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對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전기차 배터리의 對美 수출 비중이 높아 수급처 다변화가 필요

*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대중국 수입 비중(2024년, 비중%): 천연흑연(92.9), 산화·수산화리튬(83.9), 산화·수산화코발트(74.2), 산화·수산화니켈(72.4)

** 전기차 배터리 대미 수출 비중(%): (2022) 47.3 → (2024) 55.3

- ② 아프리카는 ①배터리 핵심 광물과 ②광업 노동력이 풍부하며, ③핵심광물 관련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해(마이닝 인다바 개최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음

* 전 세계 광물 매장국가(USGS 순위) :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1위), 남아프리카공화국(망간, 1위), 마다가스카르(흑연, 3위), 짐바브웨(리튬, 7위)

📖 주요국 진출 현황 (중국·미국·EU·일본) : 각기 다른 전략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을 확대

- ① 중국은 고위급 외교 채널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
 - ▶ 중국은 35년째 외교부장의 해외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하였으며, 아프리카는 중동에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2위 권역

* 화유코발트(광물), 간펑리튬(광물), 귀쉬안(배터리), 체리자동차(전기차)등 대기업도 활발히 진출

- ② 미국은 다자협의체(광물안보파트너십)를 통해 우방국과의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광물과 안보를 연계한 전략 채택

▶ 콩고민주공화국 내 반군에 대응하는 군사 지원과 핵심 광물 접근권을 교환하는 협약 추진('25.2.)

- ③ EU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 내 광물 수송 인프라 프로젝트인 로비토 회랑 건설에 참여

- ④ 일본은 정부(에너지·금속자원기구)가 직접 아프리카 내 광물 탐사 기술을 지원하며, 민간 종합상사의 현지 광산 지분 투자(JV)가 활발

광물 개발의 현실적 한계 : ①정·제련 수준이 낮고, ②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가 존재

➡ 정·제련 산업이 미성숙하여 대부분 원광에 가까운 품목을 수출하며, 광물 채굴 과정에서의 생태계 파괴, 소규모 영세광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낮은 제도 투명성이 문제 됨

- ▶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정부패지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원 국유화 및 수출 통제, 그리고 아프리카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갈등도 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

* 아프리카 주요국의 부정부패순위(총 180개국 기준): DR콩고(163위), 짐바브웨(158위), 모잠비크(146위)

한-아프리카 광물 협력 증진 방향 : 지속가능성과 전방 가공·제조 경쟁력 기반 진출

➡ 한국은 아프리카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한 ①고위급 외교 순방, ②추진 중인 통상·경제 협정*의 조속한 마무리 및 ③정부의 꾸준한 광물 개발 지원이 필요

* 아프리카 자원부국(가봉, 남아공, 탄자니아 등)과의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경제동반자협정(IPA)

- ▶ 중국·일본처럼 자원 부국 중심 순방을 추진하되,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을 강조해야 함
- ▶ 광물 개발은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올해 출범한 핵심광물투자협의회*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노력이 필요 * 공급망안정기금(연 500억 원 규모)을 활용, 대출·보증 등 간접 지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

한-아프리카 광물 협력 증진 방향

강점	· '지속가능성' 강조 * 지속가능성 지수(2024) : 일본(79.87), 한국(77.33), 미국(74.43), 중국(70.85) · 탄탄한 다운스트림 공급망 * 韓 배터리 3사 글로벌 합계 점유율 15.9%	➡	확대	· 동반성장 확대 * 한국의 경제 성장 노하우와 연계 · 다운스트림 기술력 강조
약점	· 관계 형성의 후발주자 * 중국에 비해 관계 형성 기간과 깊이가 부족 · 정책 일관성 부족		보완	· 고위급 순방 확대, 양자 외교 심화 · 통상·경제 협정의 조속한 체결 · 적극적·장기적 광물 자원 개발 지원

공급망 소식통

◆ 경남 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7.21.)

작성 KOTRA 지방협력팀

경남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주관 | KOTRA,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요

- 일시** '25.7.24.(목), 10:00~15:00
- 장소** 그랜드머큐어 엠배서더 창원
- 참석대상** 경남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수출기업 50개사 내외
- 목적** 경남 지역 美통상정책 피해·기회산업 대응력 제고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지역 수출기업 애로 해소
- 신청방법** QR코드 접속 후 모아폼 작성
- 신청기간** ~7.21.(월)

***QR코드**



수출·관세 상담 질의를
미리 남겨주세요!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30	· 행사 및 프로그램 안내	
10:30~10:55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시사점	KOTRA 지역통상조사실
10:55~11:10	· KOTRA 통상환경 변화 대응사업 - 지역 주력산업 지원, 대체시장 개척사업 중심	KOTRA 경남지원본부
11:10~11:40	· 바이코리아 신규기능 및 디지털 활용방안 소개	KOTRA 디지털사업팀
11:40~12:40	· 네트워킹 오찬	
12:40~12:55	· 경남 방위산업 현황 및 해외진출 확대방안 (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2:55~13:55	· 주목해야 할 대체시장 (서남아/중남미/중동)	KOTRA
별도 운영	· 기업 1:1 컨설팅(사전 수요조사 후 맞춤형 상담)	
10:30~14:00	- 관세상담(13:10~14:30/수요에 따라 시간 조정) - 이동KOTRA 상담	관세법인 이동KOTRA

문의 : KOTRA 지방협력팀.02-3460-7371

글로벌 경제지표 ['25.7.15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5말	7/11	7/14	7/15	전일비	전년말비
₩/U\$	1,288.00	1,472.50	1,380.10	1,375.40	1,381.20	1,380.20	△0.07%	△6.27%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76.60	1,375.00	1,378.50	1,379.30	0.06%	△6.41%
₩/CNY	181.37	202.38	192.00	191.73	191.73	192.10	0.19%	△5.08%
₩/¥100	912.25	932.67	959.00	936.35	937.55	934.78	△0.30%	0.23%
¥/U\$	141.19	157.88	143.91	146.89	147.32	147.65	0.22%	△6.48%
U\$/EUR€	1.1105	1.0429	1.1341	1.1678	1.1657	1.1682	0.21%	12.01%
CNY/U\$	7.1092	7.2992	7.1903	7.1702	7.1696	7.1743	0.07%	△1.71%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21.74원, (₩/¥100) 960.14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7/14	7/15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72.20	70.11	△2.1	△0.2	△5.8
						△2.9%	△0.3%	△7.7%
철광석		89.35(9.23일)	100.00	98.60	98.15	△0.4	8.8	△1.8
						△0.5%	9.8%	△1.8%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555.00	9,564.00	9.0	1478.5	858.0
						0.1%	18.3%	9.9%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586.00	2,594.00	8.0	484.0	77.5
						0.3%	22.9%	3.1%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4,885.00	14,840.00	△45.0	△125.0	△260.0
						△0.3%	△0.8%	△1.7%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5말	'25.6말	7/10	7/11	7/14	7월(~1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2.83	5.50	5.47	5.47	5.47	5.48
(%, YoY)	△14.8	10.8	0.5	48.5	190.5	175.4	175.4	175.0	177.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7.54	8.60	8.90	8.90	9.20	8.81
(%, YoY)	△2.3	4.0	3.9	18.2	35.6	40.7	40.7	45.4	39.5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6/27	7/4	7/11	전주비(7/4)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861.51	1763.49	1733.29	△1.7%	△29.6%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7/10	7/11	7/14	7/15	전주비(7/14)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465	1663	1783	1866	4.7%	87.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협력기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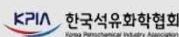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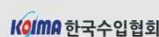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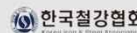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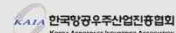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무역안보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